

## 창조절 제2주일/2020년 9월 13일

구약: 출애굽기 14,26-31

서신: 로마서 14,1-3

복음: 마태복음서 18,21-35

### 용서를 부르는 용서

1.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같은 죄에 대하여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족 사이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마 18,21)라고 묻은 것은, 그가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통상적인 용서의 횟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한편으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빈번하게 죄를 짓는 형제가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그런 형제에게 관대한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인내의 한계와 용서의 양적 횟수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마 18,22)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일흔일곱 번까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양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적으로 답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른바 라멕의 노래, ‘가인을 해친 별이 일곱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별은 일흔일곱 갑절이다.’(창 4,24)는 라멕의 노래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최초의 형제살인자였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후손입니다. 질투와 화 때문에 아우를 죽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 남자를 죽였습니다. ‘상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팻짜’는 자식에게 매질할 때 나는 상처(잠 20,30), 혹은 넘어져서 입은 멍이나 타박상 정도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렇게 미미한 상처에 대하여 살인으로 보복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일흔일곱 갑절’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폭력에 대한 더 큰 폭력적 대응, 오직 죽음으로만 끝나는 보복의 악순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출 21,25)는 구약성경의 동태복수법을 어기는 것이며,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신 32,35)는 하나님의 보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sup>1)</sup>

그런데 라멕의 노래는 일종의 자기 과시의 노래로서, 끝없는 복수를 선언한 것입니다.<sup>2)</sup> 가인의 후손들의 직업세계의 변화와 함께 죄가 증대하고, 그와 함께 본래적 삶의 질서가 점점 더 깊이 파괴되어 간 세상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형제살인에 이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보복을 인간 스스로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아주 무자비합니다. 작은 상처를 입어도 한 남자를 죽이고, 한 번 손찌검을 당해도 젊은 남자를 죽이고, 일흔일곱 갑절로 보복하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sup>3)</sup>

그런데 예수님은 라멕의 노래를 빌려, 역설적으로 ‘일흔일곱 갑절의 보복’이 아니라, ‘일흔일곱 갑절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이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은, 오직 끝없는 용서를 통해서만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베드

---

1) 천사무엘, 창세기, 대한기독교서회, 2001, 117.

2) Joachim Gnilka, Das Matthauevangelium, 1/2, Herder, Freiburg, 1988, 145.

3) 게어하르트 폰 라트, 창세기, 한국신학연구소, 1981, 120.

로와의 대화에 덧붙이십니다. 어떤 왕 앞에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끌려 왔습니다. 만 달란트는 사실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금액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의 일 년 수입이 약 900 달란트였고, 주전 4년 갈릴리와 뵤레아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약 200달란트였다면, 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헤롯 대왕이 11년 이상의 수입을 모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하겠습니까.<sup>4)</sup>

그러므로 이 비유의 배경은 왕과 그에게 개인적으로 부채를 짊어진 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로마제국의 조세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는 지역의 세금 징수를 최고 입찰자에게 도급으로 주었고, 입찰을 받은 사람은 실제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다른 대리인을 고용했습니다.<sup>5)</sup>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황제의 세금징수 대리인은 바쳐야 할 세금 외에도 자기 이익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가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여된 세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황제는 대리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옥에 가두어, 그의 다른 후견인이나 의뢰인들이 대신 부담하게 했습니다. 황제는 그들이 대리인을 구하기 위해 부족분을 벌충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sup>6)</sup>

그래서 먼저 왕은 그 종에게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종은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채무자가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왕하 4,1; 사 50,1; 암 2,6; 느 5,1-13). 그러나 당시 노예의 가격은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사이였기에, 1억 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채무액은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이런 요구에서 이 비유가 유대적 배경이 아니라, 이방인의 전통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도둑이 훔쳐온 것을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스라엘 사람을 파는 것이 허용되었고, 아

4) 에드워드 슈바이처, 마태오복음, 한국신학연구소, 1982, 397.

5) 버나드 브랜든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162.

6) 버나드 브랜든 스캇,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165.

내를 파는 것은 유대지역에서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sup>7)</sup> 게다가 채무자를 파는 것도 채무액이 채무자를 판 금액보다 많을 때에만 허락되는 것이 유대적 전통이었습니다.<sup>8)</sup>

그러므로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빚진 종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마 18,27).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그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 데나리온은 큰 돈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백 데나리온이라는 소액으로는 채무자를 팔수도, 구속할 수도 없었던 것이 유대적 전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용서받은 만 달란트에 비하면 오십만 분의 일에 불과한 돈입니다.<sup>9)</sup> 그런데 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은 자기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했다고 합니다(마 18,30).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무자비하고 강박한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끝없이 잔혹한 인간성, 동병상련(同病相憐)보다, ‘내로남불’이 지배하는 세상을 반영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종들이, 그를 매우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렸습니다. 노한 주인은 그를 불러다 놓고,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7) 요아킴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허혁 역, 분도출판사, 1974, 204; Joachim Gnilka, *Das Matthauevangelium*, 14,1-28,20, 1/2, Herder, Freiburg, 1988, 146.

8) 요아킴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허혁 역, 분도출판사, 1974, 205.

9) 에드워드 슈바이처, *마태오복음*, 한국신학연구소, 1982, 398.

했다고 합니다(마 18,32-34).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던가요? 적은 빛을 진 동료에게 한 대로, 엄청난  
게 많은 빛을 용서받고서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도 감옥에 갇힙니  
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지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당한 것입니  
다.

3. 비유의 배경이 로마 제국의 세금징수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예  
수님이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가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에 대  
한 비유는 용서에 대한 권고이자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말이지요. 왕이  
신 하나님은 모든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운 용서를 허락했는데,  
그런 용서를 받고도, 형제가 진 사소한 빛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  
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묵시문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 개의 척도, 곧 자비와 심판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지만, 마지막 심판에서는 오직 심판의 척도만 적용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보좌에 앉아 나타나시면, 긍  
휼은 없어지고, 동정은 멀리 가며, 관용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sup>10)</sup>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반해, 마지막 심판에서도 자비의 척도가 적용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어느 경  
우에 자비의 척도를, 어느 경우에 심판의 척도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  
이지요.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용서’, 오직 용서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형제의 작은 잘못도 무한히 용서한다는  
것,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  
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마 18,35)이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만이 용서를 불러옵니다. 증오는 더 큰 증오를, 폭력은

---

10) 요아킴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허혁 역, 분도출판사, 1974, 206.

더 큰 폭력을 부르는 세상에서, 용서로 용서를 부르는 형제자매들의 신앙공동체를 함께 만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4. 사도 바울도 음식 문제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 로마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롬 14,1).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드리고, 다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롬 14,3).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골 3,13)라고 말함으로써, 용서는 용납(容納)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전략적으로, 입술로만(마 15,8)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마 18,35)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을만한 행동이나 배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과 마찬가지로, 두 세 번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흔 번을 일곱 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한계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

한 신앙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 사이의 용서는 선후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요.

5.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1932-1996)은 네델란드 출신의 예수회 사제였습니다(1957년 서품). 1971년부터 예일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나, 1981년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하여 교수직을 버리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민중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으나, 다시 돌아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한 그는 다시 하버드 대학 강단을 떠나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약장애자 공동체 데이브레이크(Daybreak)에서 6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애인들과 생활한 인물입니다.

그가 풍요롭고 안정된 세계 최고의 명문대 교수직을 버리게 한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안정된 삶을 방해했지만, 그 방해거리들로 인하여 그는 자신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해거리들은 그에게서 뭔가를 하나 빼앗아 간 대신에 새로운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성공 너머에는 고독과 공동체 안에서의 내적 평안이, 어머니와의 유대관계 너머에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북아메리카의 안락한 생활 너머에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맑은 미소가 있었고, 학자로서 쌓아온 경력 너머에는 마음과 몸이 부서진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sup>11)</sup>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뒤에서 오던 승합차의 백미러에 받혀 사경을 헤매

---

11) 헨리 나우웬, *거울 너머의 세계*, 윤종석 역, 두란노, 1991, 10.

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때의 경험을 기록에 남긴 책, ‘거울 너머의 세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는 사실이었다..... 그렇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겨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이 꺼져 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어떤 강한 열망, 즉 용서하고 싶고 용서 받고 싶은 욕망, 내가 내렸던 그 모든 평가들과 의견들을 다 날려 보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들을 느꼈다.’<sup>12)</sup>

살면서 자신이 내린 평가와 의견과 판단 때문에 친구만이 아니라, 적도 생기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대감만큼, 적도 우리 자신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적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더 큰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일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죽음을 향한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원한 것은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마지막 열망은 무엇이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셨나요? ..... 헨리 나우웬의 마지막 열망은 ‘모든 짐들을 다 날려 보내고, 얻는 자유’였고, 그 자유는 오직 ‘용서’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페시스’(aphesis)는 ‘떼어낸, 분리된’을 뜻하는 접두어 ‘아포’(apo)와 ‘보내다’를 뜻하는 어간 ‘히에미’(hiemi)가 합성된 여성 명사형 단어로 ‘떼어서 떠나보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

---

12) 헨리 나우웬, 거울 너머의 세계, 윤종석 역, 두란노, 1991, 43-44.

다. 용서는 우리가 살면서 짊어진 무거운 짐, 부채, 죄를 우리에게서 떼어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빚을 떼어내 떠나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납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십니다.

### <설교 후 기도>

주님,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봉헌기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대상 16,34),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바닷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위로 건너가게하시고,  
이집트 바로의 군대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신 것처럼(출 14,26-31),  
우리를 ‘코비드-19’ 감염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온갖 가짜뉴스와 불같은 분노와 증오와 불신으로 산산조각 난  
우리나라를 치유해주시고,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주님의 창조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바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약속되고,  
주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과 고난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하신 큰 상을 내려주시옵소서(마 5,3-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